

사회계급과 가족생활

김 혜 영*

I.

개인을 둘러싼 사회관계의 많은 중요한 부분이 생산관계의 반영인 계급구조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고는 하지만, 모든 사회적 관계가 전적으로 생산의 사회적 관계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요컨대 생산영역에 둘러싸인 대부분의 개인들은 생산현장의 외부에 존재하는 가족 및 친족관계라는 생산외적 관계의 틀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가족을 위시한 이같은 생산외적 관계가 사회적 행위에 더욱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같은 생산외적 관계 가운데 핵심적 영역이라 할 수 있는 가족생활은 일견 노동세계와 분리되어 계급의식 및 계급행동과는 무관한 듯 하지만, 가족 역시 여타 제도와 마찬가지로 거시사회구조와 독립되어 존재하는 별개의 영역일 수 없다. 따라서 때로는 가족의 다양한 내·외적 특성이 계급관계와 같은 사회구조의 특성은 물론 그 변화과정의 맥락속에서 적절하게 설명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사회구조와 가족의 관련성에 관한 탐구는 흥미로운 연구영역일 뿐만 아니라 매우 중요한 연구과제가 아닐 수 없다.

다행히 근자에 들어 가족연구는 기능주의적 가족론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에 힘입어 페미니즘을 비롯한 다양한 접근방법들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으며, 역사적·문화적 마르크시즘에 의한 계급형성론의 영향으로 외재적인 계급구조의 일면적 강조에서 벗어나 행위주체로서 개인의 생활영역에서 경험하는 주관적 계급경험을 강조하게 됨에 따라 성체계를 포함한 가족과 계급구조의 관련성에 대한 탐구는 본격화되고 있다.

가족은 집합체로서의 발전적 속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으며, 사회성원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정서적·문화적·경제적 생활단위로서 의식적, 무의식적 관계들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생활단위로서 가족은 생존과 재생산을 위한 양성(兩性)과 세대 간의 상호보완적 의존과 연대에 기반하면서 생산과 재생산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삶의 욕구를 공유하는 자율성과 역동성을 지닌 독특한 유기적 관계의 장인 것이다. 따라서 가족에 관한 올바른 연구를 위해서

*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원

는 계급구조, 성체제와 가족 및 친족관계라고 하는 세가지 체제에 관한 동시적 이해와 파악이 요구된다(조돈문, 신광영, 1994 : 215).

그러나 이러한 동시적 이해에 관한 요구는 계급구조와 가족에 관한 논의들을 어렵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해 온 것도 사실이다. 그 결과 이제까지의 연구들은 계급을 외재적 변수로 도입하여 부분적인 가족생활의 실태와 성격을 규명하려는 부분적이며 초보적인 수준의 경험적 연구에 그치거나 추상적인 수준에서 가족의 종속적 위상만이 강조되는 이론적 논쟁에 머물러 왔던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남녀관계 및 친인척 등과 같은 내밀한 가족의 다양한 관계 속에서 객관적인 계급구조의 효과가 어떻게 작동되고 있으며, 역으로 이러한 경험이 계급관계나 의식, 계급투쟁과는 어떠한 관련을 맺고있는가를 탐구함으로써 계급문제를 보다 구체적인 경험영역속으로 끌어들이고으로써 연구영역을 보다 확장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의 연장선에서 본 논의는 경험적 자료를 통해 계급구조가 말그대로 특징적인 가족생활의 유형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

한편 본 연구에서 일차적으로 사용된 기본 자료는 1989년 한국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하되, 다단계 표본추출방법에 의한 전국 5대도시와 그 인접 농촌지역의 1,000명을 대상의 응답결과에 기초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자료는 비교적 신뢰성있는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숙련된 면접원들을 통해 얻어진 것이기에 비교적 조사의 신뢰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잇점에도 불구하고 이 조사는 기본적으로 계급구조와 계급의식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본 연구관심인 가족구조 및 가족생활 전반에 관한 문항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은 자료의 기본적 한계로 남을 수 밖에 없다. 예컨대 조사항목 속에는 계급구조의 획정이나 계급의식 및 노동경험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들은 매우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지만, 가족생활을 살펴볼 수 있는 문항은 가사분담관련문항과 성역할 및 성의식을 측정할 수 있는 몇가지로 국한되어 있어 가족소비, 여가 혹은 가족의식과 같은 규범적 차원이나 문화적 측면에 관해서는 아무런 정보를 얻을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이같은 문항 가운데는 비교연구를 위해 호주, 영국 등의 17개국에서 동시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표준화된 질문지를 공통적으로 사용한 까닭에 우리의 가정생활의 실정에는 부합되지 않는 문항들이 더러 발견되고 있어¹⁾ 더욱 제한적인 분석을 할 수

1) 예컨대 가사분담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문항 가운데 잔디깎기, 정원가꾸기 같은 문항은 한정된 계급에서나 일상적으로 요구되는 가사활동내용일 뿐, 대부분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 질문이다. 그 결과 80%를 상회하는 응답자들이 자신들과 무관하다고 생각하거나 응답을 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분석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이다.

밖에 없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본 논의는 가족생활 가운데에서도 가사분담, 부부간의 권위관계 및 성의식의 세가지 측면에 국한하여 가족생활을 분석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본 조사자료는 주도적으로 가족생활을 구성하는 기혼의 성인 남녀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 응답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여 분석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즉 성역할분담내역 및 부부권위와 같은 가정생활 관련 문항의 경우에는 조사대상자들을 혼인상태별로 분류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현재 부부 및 부모자녀관계를 경험하고 있는 유배우자 및 유자녀의 개인들만을 별도로 분리하여 분석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특정 문항의 경우 특히 자녀 관련문항의 경우에는 표본의 크기가 매우 작기 때문에 분석의 결과를 일반화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석에서 제외시킬 것이다. 그러나 성의식 관련문항의 경우에는 혼인상태를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아 응답자 전체를 분석대상으로 삼을 수 있었다.

끝으로 지적해야 할 것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은 방법론적 쟁점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다. 조사의 기본적인 취지가 가족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계급분석단위를 둘러싼 논쟁을 검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항이 고안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출발부터 개인을 분석단위로 설정하여 계급판별이 이루어지도록 구성되어 있어 아쉽게도 계급분석단위와 관련된 발전적인 논의²⁾의 토대를 제공해주지 못하고 있다.

III.

경험적 자료를 통해 가족생활이 계급별로 분화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살펴본 결과, 가족과 관련된 실제적 측면이 계급적 지위에 따라 분명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기보다는 오히려 가족생활에 관한 한 초계급적 특성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컨대 가족내의 성역할이나 일반적인 성의식의 경우에는 계급간 차이보다는 오히려 전통적인 고정화된 성역할의식이 계급을 초월하여 보편적인 가족 및 성문화의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결과만을 놓고 한국사회에서는 계급이 생활양식 특히 가족생활양식의 구획화나 특징적 유형화와 무관하다는 결론을 쉽사리 내릴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여기서 사용된 경험적 자료가 가족생활의 다양한 특성을 모두 반영하고 있지 않을뿐더러 주요한 계급적 구분이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어 계급간의 가족생활문화의 기회격차가 노출되지 않았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같은 결과에 기반하여 계급구조가 갖는 의미를 쉽사리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에 사용된 경험적 자료를 통한 잠정적 결과만을 놓고본다면, 가족생활에 있어 계급이 갖는 의미는 상당히 희석되거나 제한적일 수 밖에 없게 된다. 그리고 이같은 결과가 보편적 의미를 가질수 있는 합당한 근거나 경험적 연구들이

2)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본인의 박사학위논문(1996년 8월)의 2장 2절을 참조하시오.

앞으로 부가된다면 이제까지 계급론적 시각에서 가족을 접근한 다양한 이론적 논의들과는 궤를 달리하는 새로운 해석을 요구하는 것일 수도 있다. 요컨대 가족에 관한 이제까지의 논의들은 관점에 따라 몇가지로 분화되고는 있으나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간에 가족은 사회구조에 의해 규정되는 종속적 집단임을 강조해 왔다는 점에서는 일치해 왔다. 그러나 상기한 연구결과만을 본다면 가족생활의 특정 측면에서는 적어도 계급구조에 의한 영향력으로부터 상당부분 자유로운 영역이 존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가족의 영역은 계급구조 나아가 사회구조로부터 자율적인 별개의 영역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인가?

물론 기초적인 사회제도로써 가족은 사회체계의 구속력 속에서 그 특징이 규정되고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모든 가족이 독자적인 개인들에게 일정한 인성과 규범체계를 모두 동일하게 전수해 주기 보다는 나름의 변이성 속에서 재생산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일정부분 자율적 체계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가족은 사회체계, 계급구조 속에서 일정 정도 규정되고 있기때문에 특정계급의 성원으로서 계급구조의 영향을 받고는 있지만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생존력과 특성을 보유하는 자율적인 생활영역으로서 측면 역시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더욱 중요한 것은 인간은 자신을 둘러싼 다양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규정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계급적 위치에 대한 이해를 강화하기도 하며 때로는 자신의 상황을 초월하거나 왜곡되게 해석할 줄 아는 상징적 능력의 소유자이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러한 상징적 능력의 소유자가 사회화되는 주요한 기제가 바로 가족이라는 점이다. 그러므로 가족생활에 관한 보다 완결적 논의를 위해서는 가족을 둘러싼 계급구조를 위시한 거시구조 및 가족내부의 주요기제 예컨대 친족 및 성불평등체계 관한 동시적 이해는 물론 사회변화의 흐름과 방향까지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결과 역시 후속적인 경험적 작업과의 비교를 통해 가족생활과 계급구조의 관련성에 관한 보다 풍부한 논의가 요구가 전제되어야 하겠지만, 적어도 계급구조가 가족생활의 특징적 차이를 뚜렷하게 구분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지속적인고도 면밀한 주의가 요구된다 하겠다.

더욱이 한국과 같이 산업화과정이 갑작스레 진행된 사회에서는 계급불평등이 구조화되어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계급구조를 일상영역에서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근대화·산업화과정이 지난한 역사 속에서 자연스럽게 특정 계급의 성장이나 계급 간 갈등의 결과와 맞물려 진행되어 왔기 보다는 강력한 정부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기에 객관적으로 확인된 계급구조가 일상적인 생활문화의 영역으로까지 파급되기보다는 한국사회의 고유한 문화전통이나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의 효과가 강하게 남아있어 계급적 효과를 상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정생활과 같은 일상적 영역에서의 계급구조적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보다 치밀한 논의와 분석전략이 선행되어야만 계급적 효과의 유무를 올바르게 진단할 수 있을 것이다.